

사회

사라진 연구비 수익원

순천대 교수 횡령의혹 검찰, 압수수색 벌여 사법처리 여부에 긴장

검찰이 순천대학교 일부 교수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연구비를 횡령한 정황을 잡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순천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순천대 산학협력

단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근 3년여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5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의혹이 사실상 드러날

경우 파문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들의 횡령 규모가 수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정확한 연구비 사용 내역과 학교 관계자들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는 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오는 29일께 수사 내용과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연루된 교수들의 사법 처리 여부나 규모 등을 놓고 대학 안팎에서

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는 학술진흥재단이 순천대 모 교수에 대한 연구비 횡령 혐의에 대해 고소해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연락두절 오현섭 시장

여수시 조명 비리 의혹 휴가 끝나도 출근 안해 경찰, 측근도 체포영장

여수시 야간 경관조명사업 과정에서 '악대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오현섭 시장이 나흘째 연락이 두절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1일부터 23일 까지 사흘간의 휴가가 끝났지만, 이날 시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여수 경관조명사업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로 여수시청 전 국장급 간부 김모(여·59)씨가 경찰에 구속되자 돌연 휴가를 낸 뒤 나흘째 연락을 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또 시청 측에 휴가를 연장하거나 언제 출근하겠다는 뜻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청 안팎에서는 오 시장이 경찰 출두에 대비해 법적 대응 등 준비를 하느라 잠적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경찰은 야간경관조명 업체인 나이트피아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씨가 오 시장의 측근인 주모(67)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오 시장이 뇌물수수에 연루됐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24일 주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주씨는 이미 지난달 초께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다. 오 시장 마저 잠적해 수사에 난

항을 겪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3일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해 5월께 나이트피아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주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주씨에게 돈을 받은 시의원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주씨가 지난해 12월 시의원들에게 살포한 돈의 성격을 캐는 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학RCY단원들이 24일 곡성군 삼기면 청계마을의 한 매실농장에서 수확을 돕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동신대, 남부대, 목포포탈리대, 호남대, 송원전문대, 조선이공대생 50여명이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 조폭” 공짜술 2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과시해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마신 신양(29)과 소속 김모(29)씨를 공갈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5일 밤 10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손모(여·30)씨의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100만원 어치의 술을 공짜로 먹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95만원 상당의 술을 돈을 내지 않고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시교육청 전교조 3명 중징계 요구

교과부와 마찰 피해 ... 징계수위는 사법처리 이후에

광주시교육청이 민노당 가입과 당비납부 등의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3명(초등 2명, 중등 1명)을 중징계 의결해 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 전교조의 대응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시 교육청은 24일 "해당 교사에 대

한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 방침을 불가피하게 따랐으나 최종 징계 수위는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요구로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가 이뤄지지 않은 교육청은 전담과 전복만 남은 것으로 파악됐

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최고 9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전교조 광주지부 측이 경기 교육청과 같이 '경징계 요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중징계 원칙을 정한 교과부와는 불합리한 마찰 초래, 예산지원 축소, 교육현장 혼란 등 정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가혹행위 당했다” 인권위에 진정 쇄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발표한 이후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 16일 양천서의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발표한 다음 날인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경찰을 피진정기관으로 한 진정이 43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고문인척 발표 이전에 비하면 약 배로 늘어난 수치라고 인권위는 말했다. 고문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도 1건 접수돼 현재 인권위의 자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내용이 사실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접수된 진정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습스

교과부 교원 배정 '도서벽지형' 수용

전남 내년 500명선 감축

내년 전남지역 교원 감축 규모는 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4일 “도시벽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원 배정기준인 4개 지역군에서 도서벽지형을 추가해 5개 지역군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은 현행 교원1인당 기준학생수 배정 지침에 따라 내년엔 800여 명의 교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5개 지역군 신설로 300명이 줄어든 500명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시 교육청이 중징계 요구 절차를 밟은 것은 교과부 방침 수용,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지만 징계수위는 사법처리를 지켜본 후 하겠다고 단서를 달아 교과부와 전교조 주장에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성범죄 무서워 화장실 짓지 말라?

북구 문산 어린이공원 일부 주민 반대로 차질

“화장실을 크게 만들면 범죄가 늘어난다고?” 우범·탈선지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광주의 한 도심 공원 내 친환경 화장실 신·증축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예산 7600만원에 투입해 문흥동 문산초등학교 인근의 문산 어린이공원 내에 31.2㎡ 크기의 화장실을 짓고 있다. 이 공사는 기존 9㎡ 크기의 남·여 공용화장실 3개 이상 증축하는 것으로, 다음달 4일 완공 예정이다. 이 공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문산 어린이공원 친환경

놀이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 과정에서 ‘낡은 화장실도 바꿔 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문산 어린이공원 인근 주택가 주민 100여명이 친환경 화장실 신축공사 반대를 주장하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화장실이 설치되면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데다, 상가 조망권마저 침해받게 돼 영업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며 “공사 중인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친환경 화장실 조성사업에 찬성하는 주민 김모(여·43)씨는 “당연히 정비해야 할 화장실을 두고 일부 주민들의 억지성민원을 보고만 있자니 격정된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tee@

출근길 여성 앞에서 못된짓
○광주동부경찰은 24일 출근하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차모(39·광주시 동구 지원동)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시 동구 지원동 K센터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김모(여·25·광주시 동구 지원동)씨를 보자마자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
○차씨는 이날 만취 상태였는데, 경찰에서 “뺨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자 성적 욕망을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압도적 1위 시설합격을강시진

남보다 빠른 합격의 기회는 바로 여름방학이다!

공무원 합격전략설명회

유망직업 합격전략설명회

일시: 6월 25일(금) 14:30 ~ 18:00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5년연속 호남지역 최다합격자 및 수석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이상 석권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